영어어문교육 *제18권* 4호 2012년 겨울

영미권 영화에서의 오역: 내용 미숙지 및 배경지식 결여를 중심으로*

박 영
(단국대학교)

Park, Young. (2012). Mistranslations in English and American movies: With emphasis on mistakes resulting from flawed understanding and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339-360.

With the ever-growing popularity of gadget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computers, movies have emerged as popular study materials for those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and learn the cultur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However, movies are authentic materials made with no regard for foreigners and, as such, cannot be easily understood by a typical Korean college student. For this reason, Korean subtitles in movies could provide tremendous help to those who are trying to study English through movies. Unfortunately, sub-standard translations found in many movies are undermining the reliability of movies as a means of mastering English. These misinterpretations can hamper students' understanding of movies and even give the students an erroneous definition of many crucial expressions. This study, dedicated to analyzing the patterns of mistranslations in movies, focuses on the examples resulting from factors such as flawed understanding,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and simple carelessness. Examples are grouped into patterns and discussed in detail so that instructors and students of movie English may become more aware of the patterns of mistranslations and become better equipped to deal with them in advance. The identification and correction of mistranslations is essential for the movies to expand their role as a dependable means of studying English.

[cultural backgrounds/movie subtitles/screen English/translation, 문화적 배경/영화자막/스크린 영어/번역]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으로 어디서든 영상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영화는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아주 훌륭한 학습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본자료(authentic material)들이 지니는 난이도 때문에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DVD로 발매되는 영화에는 영어자막이 제공되어 학습자들이 청취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자막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글자막을 활성화시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글자막이 오역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1] 연구자는 작품상, 감독상, 남녀 주연상, 남녀 조연상 등 주요 시상 분야에서 Academy Award를 수상했거나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약 70편의 영미권 영화를 조사하였는데 자막번역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 수준의 번역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수 십 개의 오역이 발생하여 도저히 전문가의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작품도 있었다. Legal Eagles (Reitman, 1986)에서의 오역을 보자.

> You are history. 당신은 굉장하니까.

"당신은 이제 끝났어."라는 말이 거의 정반대의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영화 속의 오역들은 단순히 영화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영미권 영화가 가지는 학습매체로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된다. 속출하는 오역 때문에 학습자들은 영화를 통한 영어학습을 점차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화 속의 오역을 일일이 수정하지 않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면 영화자막을 활용한 기존 및 향후 연구들은 그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 한글자막이 장면에 맞는지 틀리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도[2]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영화 속의 오역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유능한 교수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미권 영화 속의 오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문원립(2008)을 들 수

[1] 익명의 심사자는 영어교육을 위해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화가 제시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였다. 연구자 역시 영화를 처음 시청할 때부터 자막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반복해서 시청하는 과정에서 영문 및 한글자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이러한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있는데 이 연구는 6편의 영화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오역 사례들을 Dancer in the Dark(2000), Man Who Wasn't There(2001),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2006) 등 작품별로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화 속 오역들의 출처보다는 유형에 초점을 맞춰 내용 미숙지 및 배경지식 결여, 그리고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오류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내용 미숙지는 영화내용 미숙지에 기인한 오류, 관점 및 느낌의 오류, 영화 내용과 맞지 않는 직역, 반대 의미로의 해석, 숫자와 관련된 오류, 그리고 우리말이 어색한 경우로 세분화 하였으며 배경지식 결여는 배경지식이 결여된 경우, 영어 고유명사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로 다시 나누었다. 부주의로 인한 오류는 영화장면과 불일치하는 경우와 등장인물의 대사를 다른 사람이 한 말로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Ⅱ. 내용 미숙지

1. 영화내용 미숙지에 기인한 오류

영상번역에서는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특정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생겨나는 오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영화내용의 미숙지'에 기인하지 않은 오역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화 속 상황에 맞지 않아 부정확하거나 어색한 번역이 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원문에 'out'이 들어있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The Green Mile(Darabont, 1999)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교도소장 부인 Melinda를 치료하기 위해 신비한 치유능력을 가진 죄수 John Coffey를 Paul과 동료 간수들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장면이다.

Paul: Anybody wants out, now's the time. 나갈 거면 지금이야.

상황에 따라서는 'Anybody wants out'을 '나갈 거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 장면에서 Paul의 의도는 교도소를 나가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뜻이 아니라, 겁이 나서 자신의 계획을 돕지 않겠다면 지금 빠지라는 의미이다. "빠질 거면 지금 빠져."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비유적으로 쓰인 'out'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예는 The Devil's Advocate(Hackford, 1997)에서도 보인다. 회사에 출근하려는 Kevin이 자신의 아내인 Mary Ann에 대해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이다.

Mother: You need to do a better job with Mary Ann. She's not well.
This place isn't good for her.

Kevin: So stay. Take care of her if you're so concerned!
Help me out. 그만 나갈게요.
Mother: I'll take her home if you let me.

여기서 "Help me out."은 "그만 나갈게요." 또는 "출근 좀 도와주세요."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장면의 흐름에 맞는다. 곤경에 빠졌으니 꺼내 달라며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out'을 번역자는 Kevin이 집을 나서는 'out'으로 오인한 것이다. 다음은 You've Got Mail(Ephron, 1998)에서의 사례이다. 주인공 Joe가 형인 Nelson과 자신들 소유의 서점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Nelson: How's the children's department?
Joe: It's early yet. School's not out. 수업이 아직 안 끝나서요.
And there's that children's bookstore nearby.

여기서는 "수업이 아직 안 끝나서요."가 아니라 "아직 방학을 안 해서요."라고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다. 그래야 "방학도 안 했고 근처에 아동서적 전문 서점도 있어서 매출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Joe의 대답과 문맥이 일치하게 된다. 이제 'out'과 연관된 표현들을 벗어나 영화내용 미숙지에 기인한 사례들을 좀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자. Hitch(Tennant, 2005)에서 편집장의 물음에 Sara가 답하는 장면이다.

Editor-in-chief: What's wrong with you?
Sara: Nothing a front-page story can't cure. 특종 잡은 것뿐이에요.

만약 Sara가 특종기사를 이미 취재한 상태라면 "특종 잡았으니 아무 문제 없어요."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 Sara는 아직 특종을 잡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상태이므로 "특종만 잡으면 다 해결돼요."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As Good as It Gets(Brooks, 1997)에서의 장면을 살펴보자. Carol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Melvin이 Simon과 나누는 대화이다.

Simon: What did she say?
Melvin: That I'm a great guy. Extraordinary.
And she doesn't want contact with me. I'm dying here.
Simon: Because you love her.
Melvin: No! (a) And you people are supposed to be sensitive and sharp?
게이들은 민감하고 정확해야 돼?

Simon: Then you tell me why. You're the one who's 'dying here.'
Melvin: I don't know. (b) Let me sleep on it. 그냥 잘래.

영화 속에서 Simon은 화가이며 동성애자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you people'은 게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a)는 게이라고 해서 모두 민감하고 정확해야만 하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심경(心鏡)도 이해 못하는 것을 보니 '게이들이 세심하고 예리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냐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다. 또한 (b)의 문장도 '그냥 잘래.'라는 뜻이 아니라 '하룻밤 자면서 생각 좀 해 볼게."하는 관용어구이다. 자막으로서 너무 길다면 '생각 좀 해 보자고.'정도로 고칠 수 있겠다.

Meet Joe Black(Brest, 1998)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미디어 재벌 Bill Parrish는 자신을 배신한 부하직원 Drew가 파티장에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사위인 Quince로부터 듣자 사신(死神)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Quince: I got him. The helicopter will be here in two minutes.
Bill: How are we on time? 우리가 아주 정확하군?
Death: Okay.
Bill: Get him in here.

여기에서 "How are we on time?"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군?"이라고 옮긴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 약속장소에 정시에 도착한 일행이 "How are we on time?"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투철한 시간관념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장면은 자신의 65세 생일에 삶을 마감하게 된 Bill이 Death에게 "Drew를 만나 볼 시간적 여유가 있겠나?"라며 좀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되겠나?"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어서 What Women Want(Meyers, 2000)에 나오는 오역들을 살펴보자. Nick의 상사로 부임한 Darcy가 Nick이 회의에 늦게 나타나자 속으로 생각한다.

Last one to arrive.
Wants me to know I'm not his boss. 난 사장이 아니다 그거지?

영어 단어 'boss'에 '사장'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ick이 다니는 광고회사의 사장은 Dan이지 Darcy가 아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은 "날 상사로 안 본다 이거지?"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의 사례는 'department'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인 것을 간과한 경우다. Nick이 동성애자여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Lola가 Nick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Lola: If things should ever change in that department…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생기면…
Nick: You'll be the first to know.
Lola: You promise?

여기서 department를 회사의 부서로 본 것은 대화의 흐름을 잘못 짚은 것이다. Lola는 혹시 Nick의 동성애 성향이 바뀌어 이성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사귀자는 뜻으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끊으면…" 아니면 "다시 여자가 좋아지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 되겠다.

2. 관점 및 느낌의 오류

이번 섹션에서는 영화 속 발화자의 관점이나 심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Because I Said So(Lehmann, 2007)에서 정신과의사인 Maggie에게 환자인 Stuart가 하는 말이다.

I'm really beginning to feel like I'm never going to meet anyone.
아무도 안 만날래요.

만약 Stuart가 "I'm never going to meet anyone."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하지만 이 문장은 'feel like'의 종속절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간 아무도 못 사귈 것 같아요."라는 푸념의 어조로 옮겨야 한다.

다음은 The Terminal(Spielberg, 2004)에 나오는 사례이다. JFK공항의 출입관리국장인 Salchak이 경비담당관인 Frank에게 차기 국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다.

Franck, I'm nominating you to take my place. Starting today, you will assume the duties of acting Field Commissioner until you get approval from Washington.
(중략)
I'm saying the job is yours to lose. 책임이 막중한 만큼 위태로운 자리잖소.

JFK처럼 큰 공항의 출입관리국장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겠지만 Salchak이 하는 말에는 그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라는 어감은 들어있지 않다. "The job is yours to lose."라는 표현은 '국장 서리'에서 '서리'자(字)를 떼고 진짜 국장이 되는 것은 당신 하기 나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신만 잘하면 국장이 되는 거요."라고 고치는 것이 발화자가 말하는 느낌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Legal Eagles(Reitman, 1986)에서의 오역 사례를 살펴보자.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Bower가 Tom의 스캔들 때문에 New York 검찰 전체가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자 Tom에게 하는 말이다.

> One year. I had one more year. 난 1년 더 했다고.
> Now do you think they'll remember the 67,000 convictions I got? No, they'll remember one horny bastard who made my office the laughingstock of the city.

위의 번역은 장면의 흐름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Bower는 자신이 지방검사직을 1년 더 수행했다는 단순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더 버텼으면 명예롭게 지방검사직을 그만둘 수 있었을 텐데 Tom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찍혔다는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영화 내용과 맞지 않는 직역

흥행에 민감한 영화의 속성 때문에 '원문에 충실한 번역' 대신 지나친 창작성이 개입된 번역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은 장민호(2004)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영화의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 고지식한 직역 역시 영화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방해하게 된다. The Paper Chase (Bridges, 1973)에서 주인공 Hart에게 친구인 Kevin의 부인이 하는 말이다

> The competition is killing him. 경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영화 내용을 보면 Kevin은 Harvard Law School의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워 몹시 힘들어 하고 있을 뿐,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 동사 'kill'은 "My knees are killing me."에서처럼 비유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요."로 의역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번역자의 자의성이 적절히 개입된 의역이 필요한 경우는 As Good as It Gets(Brooks, 1997)에서도 발견된다. 주인공 Carol의 집에서 기분을 내려던 데이트 상대는 Carol의 병약한 아들인 Spencer와 어머니 Beverly 때문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깨져 버리자 다음의 대사를 내 뱉으며 나가 버린다.

> It's just too much reality for a Friday night.
> 금요일 밤인데 현실적인 일이 더 많아서 그래.

위의 번역도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Carol과 주말 기분을 내려던 데이트 상대의 실망과 환멸을 전달하기엔 너무 직역이 되어 있다.

“주말인데 너무 깨는군.” 또는 “금요일인데 기분 너무 잡치네.”로 의역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Scent of a Woman(Brest, 1992)에서도 직역에 가까운 번역들이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Slade중령이 택시회사 여직원을 띄워 주면서 택시를 빨리 보내달라고 어르는 장면이다.

Some kind of body has to go with that bedroom voice.
One day I’m gonna swing by, get a better look at it.
침실에서의 목소리와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어느 날 들리게 되면 그때 자세히 보죠.

엄밀히 말하면 go with라는 숙어는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Tartar sauce goes well with fish fillets.”에서처럼 ‘–과 어울린다’는 뜻이다. 즉 상대방의 섹시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에 어울리는 섹시한 몸매를 가졌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밑줄 친 문장의 번역은 “목소리 못지않게 몸매도 섹시하겠어요.”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Something’s Gotta Give(Meyers, 2003)에서의 자막을 보자. Erica의 딸 Marin의 친구인 Danny와 Harry Sanborn이 나누는 대화이다.

Danny: He basically dies at the end of the second act. But he gets a huge laugh.
Harry: I was hoping she’d give me a reprieve. 집행유예를 해 줬으면 했지.

‘reprieve’가 ‘집행유예’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Harry를 모델로 한 배역은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Erica의 연극 2막 끝 장면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설정이다. Harry의 말은 극중에서 자신을 죽이지 말고 생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죽지 않는 걸로 해줬어야지.” 라고 의역하는 것이 상황에 더 들어맞을 것이다.

4. 반대 의미로의 해석

영상번역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시청자의 내용파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대사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일 것이다. Nine Months(Columbus, 1995)에서 주인공 Samuel이 연에 맞아 쓰러지자 가해자인 Marty가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실시한 뒤 Samuel에게 하는 말이다.

Your pupil’s aren’t dilated. 동공이 풀렸군.
You are OK. I brought you back!

동공이 풀린 사람을 보고 “You are OK.”할 수는 없을 것이니 “동공은 이상 없군.”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번역자의 단순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해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The Bucket List(Reiner, 2007)에서도 발견된다. 불치병 환자 Edward Cole과 Carter Chambers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보려고 떠난 마지막 여행에서 번지점프를 하려는 Carter와 이를 지켜보는 Edward의 대화 장면이다.

> Edward: It’s not the jump you’re afraid of! 뛰는 건 안 무섭지?
> Carter: The hell it’s not! 당연하지!

“The hell it’s not!”은 “The hell it’s not the jump I’m afraid of!”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the hell’이 앞에 오는 경우 그 이하의 내용이 강하게 부정되므로 Carter의 대답은 “뛰어 내리는 거 정말 무섭다고!”로 정정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원문의 길이가 짧으므로 자막 처리 역시 “무섭다고!”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Nine Months(Columbus, 1995)에서의 오역이 단순 실수로도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의 오역은 실수라기보다는 ‘the hell’이 갖는 반어적인 의미를 숙지하지 못 한데서 기인한다. 번역자의 자의성이 배경지식의 결여와 결합될 경우 어처구니 없는 오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Scent of a Woman(Brest, 1992)에서 Slade중령의 대사를 보자.

> He is a mechanic. She is a homemaker. He knows as much about cars as a beauty queen, and she bakes cookies. Taste like wing nuts[3].
> 도니는 자동차를 잘 알고 카렌은 쿠키를 맛있게 만들지.

자신을 오랫동안 돌봐준 조카 부부에 대해 독설을 쏟아 놓고 있는 데도 자막에는 마치 칭찬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미인대회 입상자가 자동차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카사위인 도니는 실력 없는 정비공이며 주부인 Karen 역시 wing nut을 씹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맛없는 쿠키를 만든다고 Slade중령이 빈정대고 있는 장면이므로 “도니는 어설픈 정비공이고 카렌은 맛없는 쿠키나 만들지.”처럼 조카부부를 비하하는 느낌이 전달되도록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문장의 끊어짐과 이어짐을 간과한 데에서 야기된 오역들을 살펴보자. Bridget Jones’s Diary(Maguire, 2001)에서 남자 주인공 Daniel Cleaver가 Bridget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 I made the somewhat catastrophic mistake of introducing him to my fiancée.

[3] 너트의 일종이며 도구가 없을 경우 손가락으로도 돌리기 쉽게 되어 있다.

I couldn't say, in all honesty, I've ever quite forgiven him.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 지금은 거의 다 용서했어.

자신의 약혼자를 앗아간 친구를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술회가 '지금은 거의 다 용서했다."는 정반대의 자막으로 옮겨지고 있다. Daniel의 대사가 "I couldn't say in all honesty."와 "I've ever quite forgiven him."의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된 것이다[4].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인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Lord of War(Niccol, 2005)에서 주인공 Yuri Orlov의 경쟁자인 무기상 Simeon Weisz가 하는 말이다.

You think I just sell guns, don't you? I don't. I take sides.
내가 총만 파는 것 같나? 나는 어디 편도 들지 않지.

Simeon이 자신은 거물급 무기상이어서 자신이 편드는 쪽이 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은근히 자랑하는 말인데 문장의 마침표 하나를 간과한 것 때문에 "I don't. I take sides."가 "I don't take sides."가 되어 내용과는 정반대의 자막이 나오고 있다. "나는 편들기를 한다고."로 자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숫자와 관련된 오류

숫자와 관련된 오역들 또한 번역자가 영화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번역된 초안을 영상과 꼼꼼히 대조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영화 속의 숫자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무엇의 단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오역을 한다면 시청자는 "어?"하고 잠깐 의아해하게 될 것이고 그 '잠깐'의 시간에 전개되는 영화의 내용을 상당 부분 놓치게 된다. Legal Eagles(Reitman, 1986)에서 변호사인 Tom Logan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에 잠입한 장면이다.

Female worker: May I help you?
Tom: Is this claims? 이게 클레임인가요?
Female worker: No, claims is on 26. 아뇨, 그건 26일에 옵니다.

짧은 대화지만 번역은 엉망이다. 먼저 Tom이 한 말은 "여기서 보험금 타나요?"라는 뜻인데 자막에는 '클레임'이라고 외국어를 답습하고 있으며, 여성

[4] 긍정문에 'ever quite'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무한데도 번역자는 이를 간과하고 있기도 하다.

직원의 대답도 “보험금 신청은 26호실입니다.”라는 뜻인데 번역자는 ‘on 26’를 날짜로 오해하여 “그건 26일에 옵니다.”라는 오역을 하고 있다. 여기서의 ‘on’은 “The responsibility of handling claims is on 26.”라는 뜻이며 이어지는 장면에서 ‘claims department’가 26호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자가 수치의 단위를 오해하는 경우도 The Devil’s Advocate(Hackford, 1997)에서 발견된다. 초일류 law firm의 총수인 John Milton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중역인 Lamon에게 묻는다.

> John: Lamon, how many hours did we bill Alex Cullen for last year?
> 작년에 알렉스 컬른한테 얼마 청구했지?
> Lamon: 16, 242.
> 16, 242달러요.

영화 속에서 Alex Cullen은 New York의 부동산 재벌로 등장한다. 그런 사람의 법적 문제를 일년 동안 전담하여 해결해 주고 16,242달러를 받아 냈다면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다. 이러한 오역의 결정적 원인은 16,242를 수임 시간 수가 아닌 달러의 액수로 보았다는 데 있다. John Milton의 질문을 직역하면 “작년에 알렉스 컬른한테 수임료 몇 시간 분을 청구했지?”가 되며 Lamon의 대답은 “16,242시간이요.”이다. 미국의 법률 자문 사이트인 http://www.lawyers.com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 당 최저 50달러이며 초일류 변호사들의 경우 1,000달러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1997년 물가를 지금의 1/3로 가정하여 Milton의 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시간 당 300달러를 받았다고 치면 알렉스 컬른에게 청구한 금액은 16,242 X 300 = 4,872,6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오역을 바로 잡았다고 해도 직역한 자막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번역자의 노련함이 발휘되어야 한다. 장민호(2008)에 따르면 한 번에 뜨는 자막은 12-15자 내외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알렉스 컬른한테 수임료 몇 시간 분을 청구했지?”는 22자나 된다. 차라리 John의 질문에 대한 자막은 “작년에 알렉스 컬른한테 얼마 청구했지?”라고 그대로 두고 Lamon의 대답 부분만 “500만 달러 정도죠.”라고 하거나 “엄청나게 받아냈죠.”라고 하는 것이 자막의 글자 수 제한을 피해 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말 어색

번역은 한 가지 언어에만 유창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출발어(source language)의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도착어(target language)로 간결하고 적절하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번역자가 갖추고 있을 때에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종화(2008, p.

177)도 자막 번역에서 가독성(reada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번역자는 시청자들이 순간적으로 자막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절제된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구자가 조사한 영화들 속에는 번역자가 영화 속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말 자막이 어색하거나 중의성을 지님으로서 즉시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Hitch(Tennant, 2005)에서 여자 주인공 Sara가 직장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보자.

Sara: You said that I’m always expecting men to let me down, right?
Assuming that they’re gonna fail?
Co-worker: Which he did.
Sara: Yeah, but he did it with flair. 그래, 하지만 재주 있게 안 됐지.

Sara의 말은 “Yeah, but he failed with flair.”로 rewrite될 수 있으며, Hitch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얻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멋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이다. ‘flair’가 재주, 솜씨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멋있었어.”라고 옮겨야 Hitch에게 미련이 남는 Sara의 심경이 제대로 전달된다. The Terminal(Spielberg, 2004)에서도 우리말 자막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JFK공항의 출입관리국 국장인 Salchak이 Viktor Navorski에게 하는 말이다.

So, currently, you are a citizen of nowhere.
그러므로 당신은 현재 국적불명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Viktor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권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 뿐 가상의 국가 Krakozhia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다. 따라서 “당신은 현재 국적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Meet Joe Black (Brest, 1998)에서 Bill Parrish와 장녀 Allison의 대화이다.

Bill: Why don’t we all have dinner again tomorrow night, okay?
Allison: Dinner again?
Bill: Yeah.
Allison: You haven’t had enough of us yet? 아직 충분하지 않으세요?

살아 있는 동안 딸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Bill이 내일도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는 장면인데 위의 자막에서는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 “저희가 질리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Allison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글 자막이 중의성(ambiguity)을 갖는 경우를 보자. Sweet November (O'Connor, 2001)에서 Nelson이 고객과 설전을 벌여 계약을 망쳐 놓자 광고회사 사장이 Nelson에게 하는 말이다.

You are a wreck! You are a liability! 넌 엉망진창이야! 부채 덩어리라고!

'부채 덩어리'라는 자막을 보고 시청자는 Nelson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Nelson이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뒤 상황을 보면 사장이 "You are not an asset to this company." 즉, 자네는 회사에 보탬이 못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내뱉은 것이므로 "넌 엉망이야! 회사에 짐만 된다고!"로 번역하는 것이 중의성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배경지식 결여

1. 배경지식이 결여된 경우

영상자막 속에는 영미권의 문화, 사회, 정치 등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오역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의 영화감상 및 영어학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실상 해당 언어권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지식은 수준급 번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최숙희(2007, p. 262)는 "외국어 학습은 일종의 문화학습이다."라며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양미란과 방영주(2011)는 영화를 주교재로 한 비평적 접근을 통해 영미문화에 대한 문화적 지식 및 인식을 고양하는 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Sweet November(O'Connor, 2001)에 나오는 오역들을 살펴보자.

Every night after dinner, he would shut himself in the TV room, and listen to 45s.
매일 밤 저녁식사 후에 아버진 서재에서 40년대 음악을 들었어.

Nelson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Sara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45s'는 1940년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분에 45번 회전하는 7인치 디스크, 일명 donuts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번역은 "…서재에서 전축을 트셨어." 아니면 '40년대'를 빼고 "…서재에서 음악을 들으셨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weet November(O'Connor, 2001)에는 다음의 문장도 오역되어 있다. 심한 두통이 찾아온 Sara가 Nelson에게 하는 말이다.

I’ve got a migraine. 난 마이그레인을 복용해.

migraine은 ‘반복되는 편두통’으로 Tylenol같은 진통제처럼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머리가 몹시 아파.”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는 Two Weeks Notice(Lawrence, 2002)에서도 발견된다. 형수인 Helen과 주인공 George가 나누는 대화이다.

Helen: Can I get you anything?
George: I’d love some milk duds. 우유가 마시고 싶어요.
Helen: We don’t have any. I could send out for one.

Milk Duds는 Hershey사에서 생산되는 caramel candy이다. 그러므로 “밀크 캐러멜 좀 주세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 억만장자이며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린 형의 집에 우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은 스포츠, 특히 미식축구에 관한 배경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역을 살펴보자. Jerry Maguire(Crowe, 1996)에서 Arizona Cardinals의 리시버인 Rod Tidwell이 Jerry에게 하는 말이다.

I’m a valuable commodity. I go across the middle.
난 싸구려가 아냐. 최소한 중간은 넘어.

이 문장의 오역은 ‘middle’을 리시버들의 실력을 나타낸 것으로 본 것에 원인이 있다. 자신이 중간은 넘는 실력이니 많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middle’은 적진의 중심부를 지칭한다. 영화 속에서 Rod는 그리 체구가 크지도 않고 그리 빠르지도 않아 팀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지만 적진을 가로지르며 빈자리를 찾아낸 후, 수비수들의 태클을 무릅쓰며 패스를 받아내야 하는 소위 slot receiver이다. 단번에 장거리 패스를 받아내고 touchdown을 성공시키는 리시버들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어느 팀에도 Rod같은 선수는 꼭 필요한 것이다. 다른 번역을 제시한다면 “난 소중하신 몸이야. 적진을 가로지르니까.” 정도로 고칠 수 있겠다.

이어서 정치적 배경지식의 결여가 납득하기 힘든 오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The Silence of the Lambs(Demme, 1991)에서 상사인 Jack이 Clarice에게 이야기 한다.

You grilled me pretty hard, as I recall, on the bureau’s civil rights record in the Hoover years.
후버 대통령 재직 당시 기관의 인권탄압을 추궁했고…

Jack과 Clarice는 FBI요원이므로 위의 내용을 보면 Hoover 대통령 재직 당시 FBI의 인권탄압이 심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Hoover는 미국 31대 대통령을 지냈던 Herbert Clark Hoover(1874-1964)가 아니라 1935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37년간 초대 FBI국장으로 재직하며 마피아와 용공주의자들에게 강경 대응했던 John Edgar Hoover(1895-1972)를 말하는 것이므로 "후버 국장 재직 당시…"로 자막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오역은 Scent of a Woman(Brest, 1992)에서도 발견된다. Slade중령이 Charles를 멍청하다고 나무라며 하는 말이다.

Too much football without a helmet?
Hah! Lyndon's line on Gerry Ford.
헬멧도 없이 (미식)[5]축구를 했나?
린든이 제리 포드를 임명했지.

여기서 Lyndon은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Lyndon Johnson(1908-1973)을 지칭하며 Gerry Ford는 미국의 40대 부통령이자 38대 대통령이었던 Gerald Ford(1913-2006)를 말하는 것이다. Ford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것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Richard Nixon(1913-1994)이었을 뿐더러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Johnson이 공화당이었던 Ford를 부통령으로 임명했을 리도 만무하다. Slade 중령의 'Too much football without a helmet'이라는 말은 Johnson이 Ford에 관해 "He's a nice fellow, but he spent too much time playing football without a helmet."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번역은 "존슨 대통령이 제리 포드를 비꼰 말이지."라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

2. 영어 고유명사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

배경지식의 결여를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例)는 영화 속에 사용된 특정한 고유명사들이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생소한데도 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지 않고 그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번역자의 무성의함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Two Weeks Notice(Lawrence, 2002)에서 Lucy의 아버지 Larry가 Lucy에게 이야기 하는 장면을 보자.

Larry: Remember what Sun Tzu said?
Lucy: Yes.
Larry: Keep your friends close and your enemies closer.

[5] 자막에는 '축구'라고 되어 있으나 '미식축구'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선 추’가 한 말 기억하니?
‘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

Sun Tzu를 우리말로 적어 놓은 ‘선 추’를 보고 고대(古代) 중국 오나라의 병법가인 손자(孫子)를 떠올릴 수 있는 시청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손자가 한 말 기억하니?”라고 하면 ‘grandson’과 혼동할 수도 있는 만큼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기억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음은 하위어(hyponym)가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경우 상위어(hypernym)를 사용하여 의역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Scent of a Woman(Brest, 1992)에서 Slade중령은 형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I’ll send you the Rothschild again for Christmas.
이번 크리스마스 때 로스차일드를 다시 보낼게.

로스차일드는 유대계 대부호 가문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그들이 포도농장을 소유하여 Chateau Mouton이나 Chateau Lafite같은 1등급 포도주를 생산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와인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과 흡사한 실수는 What Women Want(Meyers, 2000)에서도 발견되는데 여직원이 Nick에게 던지는 대사를 보자.

And I went out last night and got you that Merlot that you wanted.
찾으신 ‘멀롯’ 사왔어요.

Merlot가 포도의 품종명이며 또한 이 품종으로 담근 와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숫자는 Rothschild가 1등급 포도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멀로우’도 아니고 ‘멀롯’이라는 잘못된 발음이 자막에 표기되었을 때 Nick이 여직원에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부탁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챌 시청자가 몇이나 될까? 차라리 Rothschild와 Merlot의 상위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사용하여 Scent of a Woman(Brest, 1992)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비싼 포도주 보내 줄게.” 그리고 What Women Want(Meyers, 2000)에서는 “찾으신 포도주 사왔어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인명이 나올 때 역시 번역자의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이다. Scent of a Woman(Brest, 1992)에서 Slade중령은 Donna라는 여인에게 Charlie를 소개하는 도중 다음과 같이 말한다.

Charlie can do bird calls and imitate Bela Lugosi.

새소리도 잘 내죠. 벨라루고시 소리 말이에요.

자막을 보면 Bela Lugosi가 마치 특정한 종류의 새를 지칭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Bela Lugosi(1882-1956)는 Broadway와 Hollywood에서 Dracula 백작 역할을 전문으로 했던 Hungary 출신의 배우이다. 전성기에는 상당한 지명도가 있었겠지만 오늘날 그의 이름을 아는 한국 시청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그의 대표적인 배역을 고려해 “새소리도 잘 내고 드라큘라 흉내도 제법이죠.”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겨진다.

Ⅳ. 부주의로 인한 오류

1. 영화장면과 불일치

우리나라 영상번역가들의 일부가 프로덕션들의 몰이해 또는 횡포로 인해 졸속번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박찬순(2005)에 의해 보고된 바 있는데, blockbuster 영화들 중에서 조차 언어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부주의로 인해 오역에 이른 경우가 본 연구를 통해 상당 수 확인되었다. 정호정(2007, p. 214)은 “영상번역이란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로 이루어지는 복합 모드 텍스트를 문어 텍스트로 전환하는 번역방식을 말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시각정보 전달시의 오류로 말미암아 자막과 영화장면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Bruce Almighty(Shadyac, 2003)에서 촬영감독이 촬영 시작을 지시하는 대사를 보자.

We’re rolling. 녹음기 작동.

그러나 영화장면을 보면 옆에서 카메라맨이 녹음이 아닌 녹화를 시작하고 있다. 다음은 Sweet November(O’Connor, 2001)에서의 사례를 보자. 잠시 Sara의 곁을 떠났던 Nelson이 돌아와 선물꾸러미를 안기는 장면의 대사이다.

A kaleidoscope of a coiffeur for the barking-mad pet crusader.
우리의 애완견 구세주께서 머리 손질할 때 쓸 만화경.

시청자는 순간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머리 손질할 때 왜 만화경이 필요하지? 여기서의 kaleidoscope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영화에서는 Nelson이 여러 가지의 가발을 써 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 ‘애완견 구세주께서 쓰실 광대용 가발 세트’로 수정해야 한다. 영화장면과 자막의 불일치는 What Women Want(Meyers, 2000)에서도 나타난다. Nick의 상사인

Darcy가 여성용품 광고 카피의 구상을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분홍색 상자를 나눠주며 하는 말이다.

> I'm pretty sure all the women here are familiar with most of these products, so for the men let's just briefly run through them.
> 여자들에겐 당연히 익숙한 제품이니까 남자들에게만 돌릴게요.

그러나 영화장면에선 남녀직원 모두에게 상자가 주어진다. 'just briefly run through them'은 간단히 살펴보자는 뜻이므로 "여자들에겐 익숙한 제품이지만 남자들을 위해 잠시 살펴보죠."라고 수정해야 하겠다. 이어서 The Silence of the Lambs(Demme, 1991)에 나오는 오역을 보자. Clarice가 Dr. Hannibal을 면담하기 위해 교도소 감방에 들르자 간수가 하는 말이다.

> The last cell. You keep to the right. 마지막 오른쪽 방입니다.

하지만 영화장면에선 감방들은 모두 왼쪽에 위치해 있으며 오른쪽엔 방이 없다. 감방 쪽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하니 오른쪽으로 붙으라는 경고의 말이므로 "마지막 방입니다. 창살 쪽엔 가지 마세요."라고 번역해야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eet Joe Black(Brest, 1998)에서의 예를 보자. Joe가 자신의 손을 잡고 내려다보자 Claire가 말한다.

> If you're trying to tell me my future, you're looking on the wrong side.
> 앞으로의 일들을 말하실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영화장면에서 Joe는 Claire의 손등을 응시하고 있다. Joe가 palm reading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Claire가 미래를 예언하려면 손등이 아닌 손바닥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대사이므로 "제 미래를 맞추려면 손바닥을 들여다보셔야죠."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것이다.

이번 섹션에서 살펴본 일련의 오역들은 자막과 영화의 장면을 비교하는 검토과정만 거쳤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검토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영상번역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 사람이 한 말로 번역

특정한 화자의 발화를 다른 사람의 대사로 번역하는 경우도 번역자의 부주의로 분류할 수 있겠다. Meet Joe Black(Brest, 1998)에서 Claire가 아버지인

Bill Parrish에게 하는 말이다.

(a) Remember how you told me about lightening striking?
제게 해 주신 번개가 번쩍한다는 그 말씀 기억하세요?
(b) The nature of it's in there somewhere.
그건 다른 곳에 존재한단다.

자막에서 (a)는 Claire의 대화로 그리고 (b)는 Bill의 대화로 나와 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a), (b) 모두 Claire의 대사로 "Joe에게선 번개가 번쩍하는 느낌이 든다."며 Joe에 대한 호감을 아버지에게 술회하는 내용인데 자막에서는 (b)가 아버지의 대사로 오인되어 엉뚱하게 번역되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의 오역 중에서 영화 내용 미숙지, 배경지식 결여, 그리고 번역자의 부주의에 기인하는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조명되었다. 이러한 오역들이 야기하게 될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영상번역에서 오역이 속출한다면 영미권 영화나 드라마들은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습매체로서의 신빙성을 잃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영상자막을 활용한 기존, 그리고 향후의 연구들 역시 그 타당성 및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통계수치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듯이 오역이 속출하는 자막을 그대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이 또한 그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위 blockbuster라는 영화 또는 Academy Award나 Golden Globe상을 수상한 수작들에서조차 이토록 오역이 속출하는 원인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Choi & Lim(2000)[6]은 번역사의 양산으로 인해 '영상해독능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박찬순(2005, p. 227)은 "현재 영화의 번역은 주로 자막 번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오역과 졸속 번역으로 국민의 정서 생활에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것은 작품을 내놓는 프로덕션들이 자본의 영세성을 내세워 번역을 전문 번역 작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영세 번역회사나 학생, 주부 등에게 맡겨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세 연구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번역자의 언어능력이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좋은 자막번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6] 장민호(2008)에서 재인용.

또한 이석규(2002, p. 276)[7]는 “번역작가는 영상물 번역 전에 해당 영상물의 전체 내용과 등장인물들의 성격, 역할, 관계 등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번역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영화 내용 파악 및 번역, 그리고 검토 및 수정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쫓기는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면 아무리 우수한 번역가라고 할지라도 오역 및 졸속 번역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수준급’으로 번역이 된 작품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영화 속의 자막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역을 찾기는커녕 영화 전편(全篇)을 통해 발휘되는 번역자의 기지와 수완에 감탄을 연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데, 능력과 경험을 갖춘 번역가에게 충분한 시간과 보수를 보장해 준다면 영상번역에서의 오역과 졸속번역은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번역부문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내에 이미 출시된 영화들의 자막을 모두 고칠 수는 없으므로 교수자들이 교재로 사용할 영화를 선택할 때 되도록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진 작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부득이 오역이 많은 영화를 교재로 사용해야 할 때에는 교수자가 오역의 심각성을 하나씩 판단하여 결정적인 번역오류들은 반드시 바로잡아 가르쳐야 한다. 교수자들이 영화 속 오역의 유형들을 잘 숙지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영화는 학생들이 진본영어를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매체로서 그 영향력과 효용성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원립. (2008). DVD 영화의 자막 오역에 대한 조사연구. *번역학연구*, *9*(2), 95-124.

박찬순. (2005). *그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영상 번역, 소통의 미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양미란, 방영주. (2011). 영화를 이용한 비평적 문화교육 연구. *영어어문교육*, *17*(4), 313-337.

원종화. (2008). 자막번역에서의 유표적 주제구조. *번역학연구*, *9*(1), 167-191.

이석규 외.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도서출판 연락.

장민호. (2008). *번역과 자막*. 서울: 한국문화사.

정인희. (2006). 영한 영상번역 전략 연구. *번역학연구*, *7*(2), 207-233.

정호정. (2007).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7] 정인희(2006)에서 재인용.

최숙희. (2007). 영어교육에서의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문화. *영어어문교육*, *13*(1), 92-110.

Brest, M. (Director). (1992). *Scent of a woman*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Universal Pictures.

Brest, M. (Director). (1998). *Meet Joe Black*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Universal Pictures.

Bridges, J. (Director). (1973). *The paper chase*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Twentieth Century-Fox Film Corporation.

Brooks, J. L. (Director). (1997). *As good as it gets*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TriStar Pictures.

Choi, J. & Lim, H. (2000). An overview of the Korean translation market. *Meta*, *45*(2), 383-392.

Columbus, C. (Director). (1995). *Nine months*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Twentieth Century-Fox Film Corporation.

Crowe, C. (Director). (1996). *Jerry Maguire*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TriStar Pictures.

Darabont, F. (Director). (1999). *The green mile*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s. Pictures.

Demme, J. (Director). (1991). *The silence of the lambs*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Orion Pictures.

Ephron, N. (Director). (1998). *You've got mail*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s. Pictures.

Hackford, T. (Director). (1997). *The devil's advocate*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s. Pictures.

Lawrence, M. (Director). (2002). *Two weeks notice*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s. Pictures.

Lehmann, M. (Director). (2007). *Because I said so*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Universal Pictures.

Maguire, S. (Director). (2001). *Bridget Jones's Diary* [Motion Picture]. United Kingdom: Universal Pictures.

Meyers, N. (Director). (2000). *What women want*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Paramount Pictures.

Meyers, N. (Director). (2003). *Something's gotta give*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Columbia Pictures.

Niccol, A. (Director). (2005). *Lord of war*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Lions Gate Films.

O'Connor, P. (Director). (2001). *Sweet November*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s. Pictures.

Reiner, R. (Director). (2007). *The bucket list*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s. Pictures.

Reitman, I. (Director). (1986). *Legal eagles*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Universal Pictures.

Shadyac, T. (Director). (2003). *Bruce almighty*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Universal Pictures.

Spielberg, S. (Director). (2004). *The terminal*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DreamWorks Pictures.

Tennant, A. (Director). (2005). *Hitch*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Columbia Pictures.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Adults

박영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Tel: 031-8005-3071 / C.P.: 010-6313-2902
E-mail: pananza@naver.com

Received in October, 2012
Reviewed in November,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12